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반추 하위유형의 매개효과 :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김 은 하

김 보 라[†]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 여성 2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성차별경험,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우울을 측정하였고, 성차별경험이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 성차별경험이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 그리고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가 포함된 가설적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성차별경험이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경쟁모형 1,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경쟁 모형 2,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합쳐 반추의 매개효과만 포함시킨 경쟁 모형 3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경쟁 모형 1이 최종모형을 채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성차별경험은 침습적 반추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차별경험은 높은 침습적 반추를 통해 높은 우울 수준과 관련이 있지만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낮은 우울 수준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차별경험,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우울

[†] 교신저자 : 김보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371-1호
E-mail: bramblerose@hanmail.net

지난 몇 십년동안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여성의 고용률은 50%, 경제활동참가율은 55.6%, 여성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중은 77.2%,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86만 9천원으로 과거 어느 해 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한 조사에서 남성의 고용률은 72%, 경제활동 참가율은 74.8%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활동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여성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법과 정책이 정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여러 형태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지현, 탁진국, 2008). 가령, 노동부가 발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 설문조사(2011)의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직장 내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용, 채용, 배치, 승진, 임금, 정년 및 퇴직 등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취업포털 커리어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59.6%의 여성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는데, 가장 많이 경험한 성차별로는 ‘커피심부름·복사 등 잡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연봉 차별’, ‘외모·신체적 발언’, ‘야근·특근·철야 강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 배정’, ‘승진 속도 부진 및 누락’, ‘성적 농담’ 등이 나타났다(손봉석, 2012).

이러한 성차별경험은 개인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Pascoe와 Smart Richman (2009)은 메타분석연구를 통해 여성들이 성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이로 인해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chmitt, Branscombe, Postmes와 Garcia(2014)가 실시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직 내에서의 성차별경험은 낮은 수준의 경력 몰입, 높은 이직 의도, 일에 대한 낮은 동기, 조직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수 보고되었다(Basford, Offermann, & Behrend, 2013; Burke & Mikkelsen, 2005; Szymanski & Stewart, 2010).

성차별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차별 문헌에서는 성차별 경험을 외상(trauma)사건으로 개념화하고 있다(Sanders-Phillips, 2009). 이는 최근 외상 연구에서 DSM-5의 외상 진단 기준보다 포괄적인 외상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박애실, 2016), 즉, 외상 사건은 DSM-5 진단준거 A에 해당하는 사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문제, 학업문제, 직장 관련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초래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Flores, Tschann, Dimas, Pasch와 de Groat(2010)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은 PTSD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상 사건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성차별 혹은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람이 감정의 재경험, 부정적 정서경험(공포, 수치심), 과민성, 차별 관련 자극의 회피 등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경험이 외상 사건으로 개념화 될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Carter, Forshty, Mazzula, & Williams, 2005; Pieterse, Carter, Evans, & Walter, 2010).

성차별경험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의 지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Fischer & Bolton Holz, 2007), 성차별이 어떠한 경로(매개요인)를 통해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매개 요인으로는 낮은 자존감(Fischer et al., 2007; Paradies, 2006), 낮은 통제감(Moradi & Hasan, 2004), 약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Liang & Borders, 2012), 높은 중심화 평가(성차별이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 King, 2005)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이 차별경험과 심리적 문제를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Wei, Ku, Russell, Mallinckrdot, & Liao, 2008)가 보고되었는데, 특히 반추라는 대처전략이 매개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추(rumination)란 자신이 경험한 어떤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경향으로(Greenberg, 1995), 선행연구에 따르면, 반추는 분노, 불안, 우울, 약물중독 그리고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는 부적응적 대처전략으로 나타났다(Lyubomirsky, Layous, Chancellor, & Nelson, 2015). 반추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반추를 통해 개인은 부정적 생각에 압도되게 되고 문제해결을 하기 보다는 회피하기 때문이다(Nolen-Hoeksema, 2000).

또한 반추는 차별경험이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차별경험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신체적 질환의 원인인 코르티솔 수준을 높이는데, 이러한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력은 반추에 의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ibbons et al, 2014).

또한 Borders와 Liang(2011)은, 소수인종의 경우, 인종차별을 많이 당할수록 반추를 많이 하고 이로 인해 높은 우울, 적대감, 분노,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Miranda,(2004) 등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경험은 반추를 매개로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반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반추의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성장 문헌에서 반추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가령 Linley와 Joseph (2004)의 연구에 따르면, 반추를 많이 한 사람이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보다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반추의 영향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Calhoun, Cann, Tedeschi와 McMillan(2000)은 반추를 부적응적 역할을 하는 침습적 반추와 적응적 역할을 하는 의도적 반추로 구분하였다. 특히 이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반추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 반추는 외상 사건 관련(traumatic event-related) 반추로, 침습적(intrusive) 반추는 자동적으로 사건에 대해 되새김질하고 떠올리는 인지적 과정인 반면에 의도적(deliberate) 반추는 적극적으로 사건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려는 과정으로 이후 대처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후속 연구자들은 두 유형의 반추가 상반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경험적 근거를 보고하였는데, 즉, 침습적 반추는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이 있지만, 의도적 반추는 외상 후 나타나는 성장과 발전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ann, Calhoun,

Tedeschi, & Solomon, 2010; Taku, Cann, Tedeschi, & Calhoun, 2009).

이와 더불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는 일련의 연속된 인지 과정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특히 Tedeschi와 Calhoun(2004)이 제시한 '외상 후 성장 모델(A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에 따르면, 개인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직후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어느 정도 조절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의도적 반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침습적 반추 자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의도적 반추를 경험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외상을 경험한 직후 먼저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침습적 반추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려는 의도적 반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Cann, Calhoun, Tedeschi, & Solomon, 2010). 이러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관계는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고(김태국, 정은의, 2014; 양귀화, 김종남, 2014),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심리적 고통을 많이 지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동기 또한 높아 결과적으로 의도적 반추 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결과가 국내 외 연구를 통해 추후 확인되었다(김태국, 정은의, 2014; 조한로, 정남운, 2017).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연속매개로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반추의 부정적 역할만을 살펴본 기존 성차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반추의 부적응적 측면과 적응적 측면을 밝힘으로써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직장 여성을 상담하는데 있

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성차별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이지만, 성차별적 사건이 하나의 외상(trauma)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이라는 맥락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특히 최근 스트레스적 사건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한 지각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성장과 더 높은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는 경험적 근거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Tedeschi & Calhoun, 2004)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성차별 관련 교육이나 상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침습적 및 의도적 반추 연구가 외상 후 성장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둔 반면 우울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이며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National Health of Mental Health, 2016). 또한 성차별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로 우울 증상이 가장 많이 보고되기 때문인데, 가령, Kessler, Berglund, Demler, Jin, Merikangas과 Walters(2005)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이 성차별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셋째, 국내외의 많은 횡·종단 연구를 통해 반추가 우울증상을 초래하고 유지시키는 핵심요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여성에게서 우울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이 반추를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Johnson & Whisman, 2013; Hankin &

Abramson, 2002; Nolen-Hoeksema, Larson, & Grayson, 1999).

아직까지 반추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구분하여 우울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없었지만, 반추를 몰두와 반성으로 구분한 연구들은 일부 실시되었다(이소연, 신민섭, 김은정, 2010; Treynor, Gonzalez, & Nolen-Hoeksema, 2003). 몰두(brooding) 반추는 침습적 반추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면서 달성하지 못한 어떤 기준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수동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반성(reflection) 반추는 의도적 반추와 유사하게 중립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이유를 숙고하는 인지적 노력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은 몰두 반추가 회피, 우울, 불안 등과 정적 상관이 있지만 반성 반추는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전선영, 김은정, 2013; Burwell & Shirk, 2007). 이러한 결과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에 대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반추가 단일 차원이 아닌 우울과 다른 관계를 가지는 기능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소정, 김지혜, 윤세창, 2010). 이러한 연구 결과 그리고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이 우울에 취약하며 우울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통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차별은 그 피해자가 발생 여부를 통제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관련 문헌에서는 성차별을 외상 사건으로 간

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차별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인 것으로 다수 보고되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도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면 외상 후 성장 혹은 더 큰 심리적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성차별경험 후 적절한 반추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차별 맥락에서 반추의 긍정적 역할을 다룬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성차별경험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낮은 우울 수준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속매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외상사건 경험 후 침습적 반추 없이는 의도적 반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를 고려하여 성차별경험에서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경쟁모형1을 설정하였다. 또한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여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각각의 매개효과만을 가정한 경쟁모형2를 추가로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반추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은 단순매개모형을 경쟁모형3으로 설정하여 각각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연속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차별경험과 반추에 대한 경험적 토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반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모형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1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중소기업, 대학,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그리고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공무원들에게 15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127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웹코딩을 이용하여 오프라인과 동일한 형식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수도권 지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예. 워킹 맘의 모임, 상담관련 학회, 사회복지 학회)에 연구 참여를 안내 한 후,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성인은 141명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닌 47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127부의 오프라인 설문지와 94부의 온라인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목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가 지불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4.91세($SD=8.33$)로, 참여자들의 직업은 '일반 사무/관리자' 160명(72.39%), 생산/노무직 5명(2.26%), 서비스직 13명(5.88%), 전문직 41명(18.55%), 영업직 1명(.45%), 기타 1명(.45%)이었다.

측정도구

성차별사건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성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lou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2015)이 한국어로 번안한 성차별사건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5=거의 늘(내 삶의 70% 이상의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났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1년간'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문항의 예로는 "고용주, 직장 상사, 또는 관리감독자로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남자친구, 남편, 또는 다른 중요한 남자들(예. 시아버지 등)로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김은하 등(201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반추 척도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2013)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척도(Korean-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 2개의 하위요인(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자주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침습적 반추 혹은 의도적 반추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을 경험한 후의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각 문항의 '그 일' 혹은 '그 경험'을 '성차별경험'

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원척도의 문항인 “나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에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를 “나는 성차별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에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로 수정하였다. 안현의 등(2013)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 .96, 의도적 반추 .95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erogaris와 Cleary(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90-R(Symptoms Checklist-90-Revisio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0문항, 9개의 하위요인(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1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없다, 5=아주 심하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김은하 등(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고,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연구모형, 경쟁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과 더불어 샘플의 크기에 민감한 χ^2 의 특성을 감안하여 CFI, TLI, RMSEA, SRMR을 살펴보았다. CFI와 TLI는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SRMR은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또한, 경쟁모형 중 연구모형과 중첩(nested)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AIC와 ECVI를 살펴보았는데, AIC와 ECVI 모두 낮을수록 더 좋은 모형임을 의미한다(우종필, 2012). 마지막으로, 매개(혹은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gler(2002)가 제안한 바와 같이,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이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척도는 -1.07~.38, 왜도는 .25~.74로 나타나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척도<7, 왜도<2)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차별 경험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는 우울과 정적 상관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1	2	3	4	<i>M</i>	<i>SD</i>	첨도	왜도
1. 성차별경험	-				41.47	18.41	-.55	.74
2. 침습적 반추	.46**	-			2.00	.76	-.56	.34
3. 의도적 반추	.36**	.61**	-		1.90	.71	-1.07	.25
4. 우울	.36**	.50**	.30**	-	2.57	.73	-.38	.26

* $p < .05$, ** $p < .01$

을 보였다. 또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측정 모형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 내에 포함된 잠재변인들은 모두 단일차원이기 때문에, Rogers와 Schmitt(2004)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요인부하량 크기를 기준으로 문항 묶음(item-parceling)을 실시하여 각각 3개씩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측정 모형을 분석한 결과, 측정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75.79$, CFI=.988, TLI=.983, RMSEA=.051(.028-.073), SRMR=.029). 또한, 그림 3에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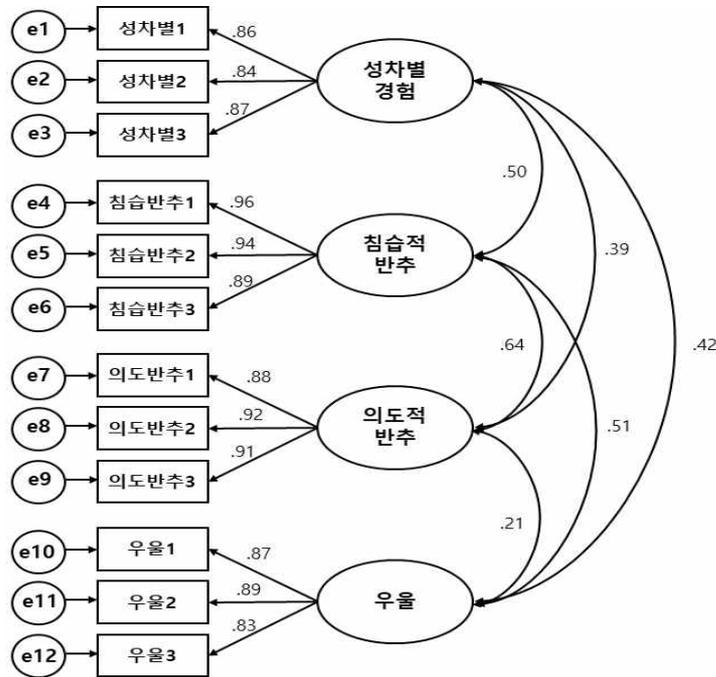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시한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0.44 \sim 0.91$ 로 $p <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검증

다음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을 검증하

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의 경우 두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1.94$, $\Delta df=1$, $p=n.s.$). 그러므로 간명성 원칙에 따라 경쟁모형1이 연구모형보다 더 나은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경쟁모형 1을 경쟁모형 2와 경쟁모형 3과 비교한 결과, 표 2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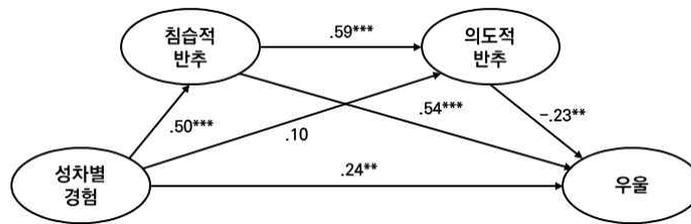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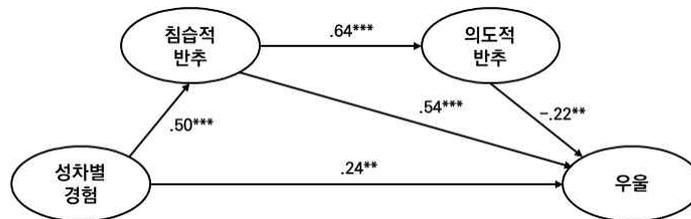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1 (최종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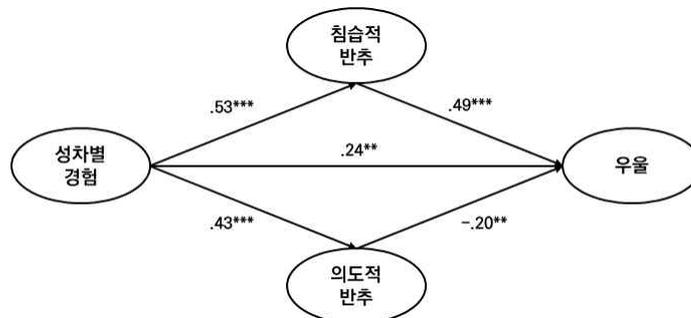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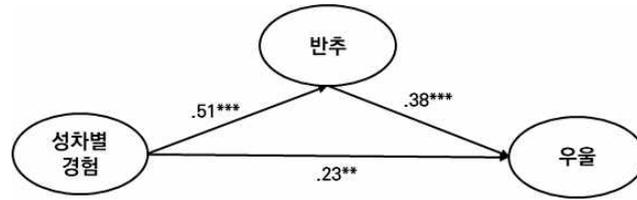


그림 5. 경쟁모형 3

한 바와 같이, 중첩(nested)되지 않은 모형이므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할 수는 없었지만, 경쟁 모형 1의 ACI와 ECVI 수치가 다른 두 모형의 비해 더 낮고 다른 지표에서도 경쟁모형 1의 적합도가 더 양호하게 나타나 경쟁모형 1이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차별경험이 침습적 반추로 가는 경로, 성차별경험이 우울로 가는 경로,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가는 경로, 침습적 반추가 우울로 가는 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의도적 반추가 우울로 가는 경로는 부적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유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침습적 반추의 단순매개효과는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df	χ^2	CFI	TLI	RMSEA	SRMR	AIC	ECVI
연구모형	48	75.787	.988	.983	.051	.029	159.787	.726
경쟁모형 1	49	77.731	.987	.983	.052	.035	136.731	.617
경쟁모형 2	49	141.435	.959	.945	.093	.137	223.435	1.016
경쟁모형 3	32	263.258	.863	.807	.181	.078	329.258	1.497

** $p < .01$, *** $p < .001$

표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성차별경험 ⇨ 침습적 반추	.39	.05	.50***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58	.06	.64**
침습적 반추 ⇨ 우울	.52	.09	.54***
의도적 반추 ⇨ 우울	-.24	.09	-.22**
성차별경험 ⇨ 우울	.18	.06	.24**

** $p < .01$, *** $p < .001$

표 4. 간접 효과 검증

경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성차별경험⇨ 침습적 반추 ⇨ 우울	.326	.177	.203(.119~.317)
성차별경험⇨ 침습적 반추 ⇨ 의도적 반추 ⇨ 우울			-.054(-.115~-0.014)

95% 신뢰구간이 .119~.317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습반추에서 의도 반추를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연속매개경로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95% 신뢰구간은 -.115~-0.01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이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외상 범주에 포함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점(Flores, Tschann, Dimans, Pasch, & de Groat, 2010; Sanders-Philippis, 2009) 그리고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을 매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상 후 성장 문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차별경험을 독립변인,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변인,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과 성차별경험에서 의도적 반추의 경로가 제외된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이들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성차별경험은 침습적 반추를 통해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경험과 관련하여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외상 경험 후 나타나는 침습적 반추가 부적응적 심리적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한다(양귀화, 김종남, 2014; Tedeschi & Calhoun, 2004). 또한 성차별경험이 반추, 특히 몰두(blooding) 반추를 매개로 우울을 초래한다는 선행 연구(Hirsch, Visser, Chang, & Jeglic, 2012; Miranda, Polanco-Roman, Tsypes, & Valderrama, 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침습적 반추의 매개 효과는 반추가 우울의 발생, 유지, 악화를 예측하는 개인차 요인이라고 가정하는 반응양식이론(Nolen-Hoeksema, 2000; Nolen-Hoeksema, Stice, Wade & Bohon, 2007)과 결부시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응양식이론에 따르면,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에 취약한데, 그 이유는 이들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비판적,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적응적인 대처 방안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재학인 추구, 불평과 같은 부정응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많이 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

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roquin & Nolen-Hoeksema 2015; Weinstock & Whisman, 2007). 실제로,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해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차별 사건을 더 비판적,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회피, 불평 등의 소극적인 대처 양식을 보여 심리적 문제(예. 우울, 공격성, 적대감, 섭식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orders & Liang, 2011; Franklin & Boyd-Franklin, 2000; Hatzenbuehler, Nolen-Hoekseman, & Dovidio, 2009; Wang & Borders, 2017). 즉, 성차별경험 후 침습적 반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도적 반추는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도적 반추와 유사한 개념인 반성(reflection) 반추가 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Miranda, Polanco-Roman, Tsypes, 그리고 Valderrama(2013)의 연구 결과 그리고 의도적 반추가 외상 경험과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양귀화와 김종남(2014)의 연구 및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에서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제외된 경쟁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는 성차별 경험 후 바로 의도적 반추가 나타나지 않으며 성차별경험과 의도적 반추를 잇는 다른 요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에 반해, 의도적 반추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의도적 반추가 우울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적 요인임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 반추와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반성 반추가 장기적으로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Burwell & Shirk, 2007; Raes & Hermans, 2008)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의도적 반추가 수용, 긍정적 사고, 자신에 대한 자각 변화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조선화, 강영신, 2015)을 고려할 때 의도적 반추가 우울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성차별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연속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차별경험 이후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의도적 반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로는 낮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Tedeschi와 Calhoun(2004)이 제안한 '외상 후 성장' 모델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외상 사건이 발생한 후 초기에는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및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의미를 형성하는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침습적 반추를 많이 경험할수록 의도적 반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이동훈 등, 2017). 실제로 외상 후 성장모델에서 제시하는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연속매개효과는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박애실, 2016; 조한로, 정남운, 2017; Cann, Calhoun, Tedeschi, & Solomon, 2010).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성차별경험 후 나타나는 침습적 반추가 단기적으로는 우울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의도적 반추로 가기 위한 필수적 인지과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험한 성차별적 사건에 대해 잊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충분히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 장면에서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 여성 내담자를 상담할 시, 얼마나 그리고 어떤 유형의 성차별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 결과(예. 우울)가 초래되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Mazzula & Nadal, 2015). 특히 상담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 내담자로부터 자신의 성차별경험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염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담자가 먼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Owen, Tao, & Rodolfa, 2010). 또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성차별경험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객관적’인 관점이 아닌 내담자의 주관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성차별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데, 다만, 내담자가 과도하게 해당 사건을 비판적 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그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연속매개효과를 고려할 때, 성차별을 경험한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 내담자가 어떠한 반추를 사용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성차별 사건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떠오르는가?”, “성차별 사건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그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마음에서 떨쳐내기 어려운가?” 등의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침습적 반추 정도를 탐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도적 반추에 대한 질문으로는 “성차별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성차별경험을 통해 무

엇인가를 배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성차별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등이 있다. 만약 내담자가 성차별경험에 대해 침습적 반추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 외상경험의 인지 과정 단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침습적 반추가 자연스러운 반응임과 동시에 긍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내담자가 성차별 경험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상담관계에서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침습적 반추는 우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경험으로 유발되는 부정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처방안(명상, 마음챙김)을 모색하여 점차적으로 침습적 반추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더 나아가, 침습적 반추에서 벗어나 의도적 반추로 도달하기 위한 상담 개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과의 만남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edeschi & McNally, 2011). 따라서 상담센터에서는 글쓰기 과정을 통한 개입이나 성차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여성들과의 집단 상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긍정적 재평가, 균형있게 바라보기, 수용 등과 같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의도적 반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박애실, 2016)를 반영하여 인지행동치료와 수용전념치료 등을 통해 침습적 반추를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기분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고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전선영, 김은정, 2013).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직장 여성에 국한되어 실시되었고 연령 및 직업 별 표집의 수가 고르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령과 직업에 따라 성차별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특히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연속매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적 변화를 포함하는 종단연구 분석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성차별이 여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의 성차별경험을 측정하였으나 성차별 경험 이후 경과시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과시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간의 관계를 조절 혹은 매개하는 요인(정서인식 명확성, 자기노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사회적 지지)들이 밝혀졌는데(유희정, 2014; 이동훈 등, 2017; 조한로 등, 2017),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이 의도적 반추를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차별경험에 대한 반추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선행 연구와 달리(Borders & Liang, 2011; Hatzenbuehler, Nolen-Hoeksema, & Dovidio, 2009),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구분하여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성차별 맥락에서 반추가 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의도적 반추는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성차별경험이 직접적으로 의도적 반추로 이어지기 보다는 침습적 반추를 통해 의도적 반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침습적 반추는 우울과 PTSD 증상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동시에, 의도적 반추를 촉발하는 심리적 과정이며 침습적 반추를 통해 의도적 반추를 거치고 나서야 낮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성차별경험과 관련지어 재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몇 십 세기 동안 한국 사회에는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고 관련법과 프로그램 등이 제정 및 실시되고 있다(김수환, 신동은, 2014). 하지만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의 수는 적지 않으며 단기간에 성차별을 근절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은하 등,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 반추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임상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중앙적성출판부.
- 김소정, 김지혜, 윤세창 (2010).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1-19.
-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47.
- 김수한, 신동은 (2014). 기업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경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학 논문집*, 12, 149-167.
- 김태국, 정은의 (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 이후 경과시간과 외상 후 성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57.
-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 (2011). 남녀고용차별에 대한 인식과 남녀고용차별경험 여부. http://www.kefplaza.com/labor/om/employ_view.jsp?nodeid=141&idx=9951.
- 박애실 (2016). 외상 후 인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7(5), 181-200.
- 박지현, 탁진숙 (2008). 여성종업원의 조직 내 성차별 지각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2), 245-263.
- 손봉석 (2012). 女직장인 86%...“이건 성차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21135321.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양귀화, 김종남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5.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성별에 따른 외상사건 경험이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227-253.
- 이소연, 신민섭, 김은정 (2010). 반추적·반성적·경험적 자기초점화가 우울 기분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0(1), 75-95.
- 유희정 (2014). 탄력성과 고통지각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59-85.
- 전선영, 김은정 (2013). 대학생의 반추 하위유형들(몰두와 반성)과 우울 증상간의 관계: 회피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2), 285-306.
- 조선화, 강영신 (2015). 애도 회피에 따른 침투적 반추가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 및 자기 노출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41-663.
- 조한로, 정남운 (2017).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및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433-455.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243-264.
- Basford, T. E., Offermann, L. R., & Behrend, T. S. (2014). Do you see what I see? Perceptions of gender microaggressions in the workpla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3), 340-349.
- Borders, A., & Liang, C. T. H. (2011). Rumination partially mediates the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emotional distress, and aggression. *Cultural Diversity &*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7(2), 125-133.
- Burke, R. J., & Mikkelsen, A. (2005). Gender differences in policing: Signs of progress? *Employee Relations*, 27(4), 425-436.
- Burwell, R. A., & Shirk, S. R. (2007). Subtypes of rumination in adolescence: Associations between brooding, reflection, depressive symptoms, and cop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1), 56-65.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3), 521-527.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 Solomon, D. T. (2010).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ciation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well-be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 1-16.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An International Journal*, 24(2), 137-156.
- Carter, R. T., Forshty, J. M., Mazzula, S. L., & Williams, B. (2005). Racial discrimination and race-based traumatic stres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 R. T. Carter (Ed.), *Handbook of racial-cultural psychological and counseling: Training and practice (Vol. 2)* (pp. 447-476). Hoboken, NJ: Wiley.
- Derogatis, L. R., & Cleary, P. A. (1977). Confirmation of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SCL-90: a study in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981-989.
- Flores, E., Tschann, J. M., Dimas, J. M., Pasch, L. A., & de Groat, C. L. (2010). Perceived racial/ethnic discriminati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health risk behaviors among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3), 264-273.
- Fischer, A. R., & Bolton Holz, K. (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310.
- Franklin, A. J., & Boyd-Franklin, N. (2000). Invisibility syndrome: A clinical model of the effects of racism on African-American males.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1), 33-41.
- Johnson, D. P., & Whisman, M. A. (2013). Gender differences in rumination: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4), 367-374.
- Gibbons, F. X., Kingsbury, J. H., Weng, C., Gerrard, M., & Cutrona, C., Wills, T. A., & Stock, M. (2014). Effects of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on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A differential mediation hypothesis. *Health Psychology*, 33(1), 11-19.
- Greenberg, M. A. (1995). Cognitive processing of traumas: The role of intrusive thoughts and reappraisa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14), 1262-1296.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2). Measuring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Reliability, validity,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 Adolescence Psychology*, 31(4), 491-504.
- Hatzenbuehler, M. L., Nolen-Hoekseman, S., & Dovidio, J. (2009). How does stigma “get under the ski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Psychological Science*, 20(1), 1282-1289.
- Hirsch, J. K., Visser, P. L., Chang, E. C., & Jeglic, E. L. (2012). Race and ethnic differences in hope and hopelessness as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0(2), 115-125.
- Kessler, R. C., Berblund, P., Demler, O., Jin, R.,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593-602.
- King, K. R. (2005). Why is discrimination stressful?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appraisal.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1(3), 202-212.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0.
- Liang, C. T. H., & Borders, A. (2012). Beliefs in an unjust world mediate the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 528-533.
- Lyubomirsky, S., Layous, K., Chancellor, J., & Nelson, S. K. (2015). Thinking about rumination: The scholarly contributions and intellectual legacy of Susan Nolen-Hoeksema.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1, 1-22.
- Mazzula, S. L., & Nadal, K. L. (2015). Racial microaggressions, whiteness, and feminist therapy. *Women & Therapy*, 38(3-4), 308-326.
- Marroquin, B., & Nolen-Hoeksema, S. (2015).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Close relationships as social context and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5), 836-855.
- Miranda, R., Polanco-Roman, L., Tsypes, A., & Valderrama, J. (2013). Perceived discrimination, ruminative subtypes, and risk for depressive symptoms in emerging adulthood.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9(4), 395-403.
- Moradi, B., & Hasan, N. T. (2004). Arab American persons' reporte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s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18-428.
- National Health of Mental Health (2016). *Major Depression*. <https://www.nimh.nih.gov/health/statistics/major-depression.shtml>
- Nolen-Hoeksema, S. (2000). The role of rumination in depressive disorders and mixed anxiety/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504-511.
- Nolen-Hoeksema, S., Larson, J., & Grayson, C. (1999). Explain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61-1072.
- Nolen-Hoeksema, S., Stice, E., Wade, E., & Bohon, C. (2007).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rumination and bulimic, substance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1), 198-207.
- Owen, J., Tao, K., & Rodolfa, E. (2010). Microaggressions and women in short-term psychotherapy: Initial evid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7), 923-946.
- Paradies, Y. (2006).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self-reported racism and health. *Ethnic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 888-901.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Pieterse, A. L., Carter, R. T., Evans, S. A., & Walter, R. A. (2010).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s among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racial climate, and trauma-related symptoms in a college student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3), 255-263.
- Raes, F., & Hermans, D. (2008). On the mediating role of subtypes of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epressed mood: Brooding versus reflection. *Depression and Anxiety*, 25(12), 1067-1070.
- Rogers, W. M., & Schmit, N. (2004). Parameter recovery and model fit using multidimensional composites: A comparison of four empirical parceling algorithm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 379-412.
- Sanchez-Hucles, J. V. (1996). Racism: Emotional abusiveness and psychological trauma for ethnic minorities. *Journal of Emotional Abuse*, 1(2), 69-87.
- Sanders-Phillips, K. (2009). Racial discrimination: A continuum of violence exposure for children of color. *Clinical Child Family Psychology Review* 12(2), 174-195.
- Schmitt, M. T., Branscombe, N. R., Postmes, T., & Garcia, 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zymanski, D. M., Dunn, T. L., & Ikizler, A. S. (2014). Multiple minority stress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exual minority women: The roles of rumination and maladaptive coping. *Journal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 412-421.
- Szymanski, D. M., & Stewart, D. N. (201). Racism and sexism as correlates of African American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Sex Roles*, 63(3-4), 226-238.
- Taku, K.,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08). The role of rumination in the coexistence of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bereave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eath Studies*, 32, 428-444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 McNally, R. J. (2011). Can we facilitate posttraumatic growth in combat veterans? *The American Psychology*, 66(4), 19-24.

- Treynor, W., Gonzalez, R., & Nolen-Hoeksema, S. (2003). Rumination reconsidered: A Psychometric 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3), 247-259.
- Wang, S. B., & Borders, A. (2017). Rumination mediates the associations between sexual minority stressors and disordered eating, particularly for men. *Eating and Weight Disorders*, 22(4), 699-706.
- Wei, M., Ku, T. 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 Weinstock, L. M., & Whisman, M. A. (2007). Rumination and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in depression: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 333-342.
- West, S. G., Finch, J. F.,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Hoyle R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1차원고접수 : 2018.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8. 09. 05.
최종원고접수 : 2018. 09. 18.

The Mediating Effect of Subtypes of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Eun-Ha Kim

Bo-Ra Kim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For this purpose, two models were established: a hypothesized model and a comparison model. A total of 221 employed women participated in paper-and-pencil and online surveys and responded to the scales that measured the experience of gender discrimination,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and depression. We developed a hypothesized model that included a path from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to intrusive rumination, a path from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to deliberate rumination, a path from intrusive rumination to deliberate rumination. In addition, three alternative models were developed (Model 1 not including a path from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to deliberate rumination, Model 2 not including a path from intrusive rumination to deliberate rumination, and Model 3 examining a total score of rumination as a media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intrusive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was significant. Further, the path that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led to depression by dual mediating effects of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was significant. Such findings implied that perceived discrimination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rough intrusive rumination, but, if intrusive rumination turned to deliberate rumination, it could decrease a level of depression.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intrusive 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depression